***PRESS INFORMATION*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참고 자료** | **2024. 3. 25 배포 시부터** |
| **사진 설명** | 25일 전북도청에서 ‘동박 소재 공장 투자 협약’ 체결 후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장, 김관영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지사, 이상호 한국미래소재㈜ 대표, 강임준 군산시장(왼쪽부터)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|
| **문의** | **강철 팀장(02-2189-9607, 010-9447-7079,** [**ckang@lscns.com**](mailto:ckang@lscns.com)**) / 뉴스룸(**[**http://news.lscns.com**](http://news.lscns.com)**)** |
| **LS전선, 동박용 구리 신소재 생산 본격 추진**  **■ 자회사 한국미래소재㈜가 전북도, 군산시와 공장 신설 투자 협약**  **■ 세계 최초 개발 큐플레이크 연내 양산, 동박 제조 공정 간소화**  **■ LS에코에너지, LS머트리얼즈 등 관계사와 신소재 사업 협력**  LS전선이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동박용 구리 신소재, 큐플레이크(CuFlakeTM) 생산을 본격 추진한다.  LS전선은 자회사인 한국미래소재㈜가 25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, 군산시,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장 신설 투자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.  공장은 전북 군산국가산업단지의 16,576㎡(약 5,014평) 부지에 연면적 7,935㎡(약 2,400평) 규모로 지어진다. 오는 5월 착공, 12월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약 360억원이 투입된다.  큐플레이크는 동박의 원료로 구리 선 대신 조각을 사용, 가공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였다. 불순물을 제거하는 절단, 세척 등을 거치지 않아 공정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.  이상호 한국미래소재㈜ 대표는 “군산 공장의 건설로 고품질의 동박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”며, “LS에코에너지, LS머트리얼즈 등 관계사들과 희토류 영구자석, EV용 알루미늄 부품 등 친환경 소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 김관영 도지사는 “전북에 투자한 기업의 성공이 전북의 성공이다”라며, “한국미래소재㈜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더욱 큰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  회사 측은 주요 동박 업체들과 인접하고 2차전지 관련 투자가 활발한 전북도와 군산시의 투자환경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군산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전했다. | |